

## 지방사립대 남학생들의 학업중단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고학년 제적학생을 중심으로

박 경 은\*

윤 진 영

세명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본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존립의 위협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 지방사립대학 고학년 남학생들의 학업중단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하여 충청북도 소재지 한 대학에서 제적 학생의 명단을 받아 연구 참여에 동의한 15명 학생과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모두 전사하여 질적 연구 분석 방법 가운데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183개의 개념과 54개의 하위 범주, 18개의 상위 범주를 도출하였고, 축코딩 매트릭스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과정 분석에서는 지방사립대 고학년 남학생의 학업중단의 과정은 총 7단계로, '소속감 찾기', '재미 찾기', '멈춰 생각하기', '(바깥) 세상 경험하기', '진로 확정하기', '몰두하기', '학업 마무리 짓기'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와의 비교분석을 제시하였고, 향후 지방사립대학의 존립을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주요어 : 지방사립대학, 남학생, 학업중단, 근거이론

---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경은, 세명대학교 교양대학 & 경영행정복지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 / E-mail: p4a7r4k3@semyung.ac.kr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와 함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학생 유치와 유지는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 최근 고교 졸업생 진학률이 2008년 83.8%였는데 반해 2018년 68.9%로 떨어졌고, 2021학년도 학령인구의 감소는 가장 크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울과 수도권 대학을 제외한 비수도권 및 지방 대학의 존립은 더욱 어려워졌다. 지방대학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에 소재한 대학을 뜻하며(임승달, 권영섭, 변세일, 2004), 지방대학의 학업중단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여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에서 2016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학업중단 학생 수는 수도권이 5만 3,577명이었던 반면, 지방은 10만 3,422명으로 집계되어 두 배의 차이를 나타냈고, 이 수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유치의 어려움은 차치하고서라도 대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재학생들의 이탈은 지방대학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재학생의 이탈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학업중단이라는 용어로 표현될 수 있다. 교육부가 2002년부터 청소년의 중도탈락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사회인식을 변환시키고자 '학업 중단'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권장하였다. 대학생들의 학업중단은 학업지속의 반대 개념으로, 중도이탈(withdrawal), 자퇴(drop-out), 편입(transfer), 선택적 포기(optout)를 포괄한다(Hoyt, & Winn, 2004). 학업중단은 교육기관을 떠나는(institutional departure) 의미를 넘어 학업의 단절(system departure)을 의미하나, 이는 어느 시기에 발생하는 하나의 사건이기보다 교육을 받는 다양한 경험 속에서 이뤄지는 역동적 과

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중단은 현재의 시점에서 학생이 학업을 멈췄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역동을 경험하게 됨으로 다시금 학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이동화, 2014).

이러한 학업중단, 학업지속의 개념은 기존에 제시된 다양한 진로발달이론 속에서 이해되기에 한계가 있다. Ginzberg(1952)에 의하면 진로발달은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대학생은 현실기에 해당한다. 현실기 단계는 또다시 세부 3단계로 나뉘어진다. 여러 직업들을 살펴보는 탐색 단계, 내·외적 조건들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결정 단계, 결정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구체화 단계를 거친다. Super(1969) 또한 진로발달을 전생애적 관점에서 제시하며 대학생 시기에 해당하는 초기 성인기에는 자신의 흥미와 가치를 중심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잠정기, 취업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는 전환기, 궁극적으로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시행기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보았다. 반면, Tiedman과 O'Hara(1963)에 의하면 진로발달은 특정 연령에 고정되지 않고, 자신의 흥미, 재능, 목표 등에 부합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진로발달이론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에는 진로와 관련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이 설정한 직업 성취를 위하여 학업에 몰두할 것이 기대된다. 반면, 급변하는 현시대와 수준 있는 대학의 졸업장을 요구하는 한국의 암묵적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방사립대학의 학생들이 확고한 진로 정체성을 확립하여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맥락을 함께 해석해 내기에는 위의 진로발달이론이

갖는 한계가 있다.

현시대 한국의 사회적 맥락은 기존의 진로 이론에 맞추어 진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진로발달 및 성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 인하여 지방사립 대학 학생들의 학업중단은 개인의 문제로만 귀결될 수 없으며, 학생 개인의 심리내적인 문제와 학생이 선택한 대학 및 이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과 구조, 노동시장의 변화 등이 다각적으로 관여한 체계적인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1990년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온 Tinto(1975, 1987, 1992)의 통합적 이론을 토대로 한다. 이 관점의 초기 접근은 학업중단을 학생의 개인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후 학업중단의 요인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지적되면서 교육기관의 형태 및 교육 방식 등 학생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 교육 환경의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의 대학은 서울 중심화, 지방 자치로의 균형적 발전의 실패 등의 문제를 필두로 대학의 서열화가 가속화되면서 지방대학의 위상이 하락하였다(이두휴, 고형일, 2003). 이에 따라, 지방대학 출신 학생들이 소속 학교에 대해 갖는 자긍심이 낮아지고, 졸업 후 취업에서 겪는 차별 및 진로 선택에서의 제약 등이 지방대학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박환보, 김성식, 2011).

반면, 지방대학은 여러 가지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대비 전임교원 수를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박성호 외, 2014),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진미석(2013)의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대학생들을 비교한 결과 신입생의 경우 지방대학생들이 의사소통, 종합적 사고

력, 대인관계 및 협력, 자기관리 등의 핵심역량이 부족했던데 반해,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지방대학의 낮은 명성, 학생 자신의 낮은 자긍심 등의 문제는 학업을 지속하는데 더욱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학업중단의 요인은 이러한 외부 환경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없고, 한 개인의 특성과 능력, 목표의식과 헌신정도, 가정·대학·사회 환경 등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 견해는 오늘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Rumberger(2004)는 이를 개인적 관점과 환경적 관점으로 분리하기도 한다. 주목할 것은 개인적 특성과 대학의 환경 및 사회적 환경의 상호작용이 적응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업중단의 위험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Zvoch, 2006).

지방사립대학 학생들의 학업중단은 앞서 지적한 사회 환경적 맥락뿐 아니라 개인적 요인에 의해 이해될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중단에 관여하는 개인적 요인에는 성별, 연령, 대학입학 이전 학업성취수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있다(임언, 곽윤영, 2011). 지방대학생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학업성취기대 수준 등이 낮아(김형관, 신현석, 서민원, 황기우, 2001) 상대적으로 학업중단의 위험요인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별 차이에서는 남학생이 군대로 인한 휴학을 제하더라도 여학생에 비해 학업중단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연, 2006). 대학입학 이전 교육기관 형태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학업중단율이 높았고(김성식, 2007), 수능점수가 높았던 학생은 1학년에 잘 적응했으나 2

학년이 되면 학업중단의도가 높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최보금, 2010). 학년별 학업중단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들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 지방 및 전문대를 나누지 않더라도 1학년 학생들의 중도이탈률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연, 2012).

개인의 심리내적인 요인으로 낮은 학업 효능감은 대학 생활 적응과 학업중단에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된다. 학업에서의 자기 효능감은 대학생활적응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권재환, 김경희, 2013), 이것이 학업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학업을 지속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정애경, 김지심, 김정화, 2013), 낮은 학업 효능감이 학업 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강승호, 2010)가 있었던 데 반해, 학업 효능감이 학업 중단을 예측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형정은, 김정섭, 2016) 또한 있었다. 한편, 지방대학생들은 서울 및 수도권 학생들에 비해 고차원적 사고 능력 및 분석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등의 역량이 낮다는 결과(최정윤, 이병식, 2009)가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 효능감을 가지고 입학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진미석(2013)의 연구에서와 같이 지역소재별 학생역량의 차이가 학년의 변화에 따라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미루어 볼 때 개인내적 요인인 학업 효능감 또한 지방대학생들에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지방사립대학 학생들의 학업중단과 관련한 개인적 요인으로 적성과 전공적합도, 진로 정체성과 목표의식이 있다. 자신의 적성에 대한 충분한 탐색 이후 전공 선택이 이뤄지고, 졸업 후 희망하는 직업이 일치할 경우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높고(조은정, 이해경, 2014), 학업 지속의 동기가 높았던 반면(노혜란, 최미나, 2008), 전공적성의 불일치와 낮은 진로정체성 및 낮은 목표의식은 학업 중단의 위협을 높일 수 있다(김성식, 2008; 박은주, 이해경, 2016; 안나영, 2016). 성적에 맞춰 학교, 학과를 선택하는 풍토는 신입생들의 대학 자긍심을 저해하고, 대학 입학 후 지연된 진로적성에 대한 탐색은 학업중단의 위협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최길성, 이용창, 2013). 따라서 신입생들과의 밀착형 상담을 통해 입시 준비에서의 어려움과 대학 선택의 과정을 탐색하고 현재 전공과 적성, 진로와 관련된 생각을 세밀하게 지도함으로써 대학 생활의 적응을 도와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생들은 입시실패로 인한 좌절감, 학교 위상에 대한 낮은 자긍심, 전공 적합의 불일치와 낮은 진로 정체감 등의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이들이 조기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2-3년 가량 대학 생활을 유지하면서 어떠한 심리 내면의 변화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심층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사립대학 학생들의 학업중단과 관련한 개인의 관계적 요인으로 사제관계, 선후배관계, 교우관계 등이 있다. 이 관계들은 여타의 관계들과 달리 지적, 정서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대학생활의 적응과 몰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문정, 최예정, 2014; 홍지인, 2014). 그중에서도 사제관계의 영향은 각기 다른 연구결과들이 있었다. 사제관계는 교수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가르치냐의 차원을 넘어 학생이 교수와 다양한 활동 속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자기 개념의 획득과 소속감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한송이, 2010). 반면, 사제관계에서의 어려

움은 학업중단을 예측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됐으나(최길순, 2010), 교수와의 관계가 학업 중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 또한 있었다(김성식, 2007; 박은선, 김광현, 2016). 반면, 교수와의 긍정적 관계 경험은 학업 지속에 영향을 미치고(김수연, 2010), 학업중단 이후 재등록 의사를 갖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이석열, 2008). 사제관계는 지방대학에 있어 특별히 더 많이 연구된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지방대학의 특성상 학생들의 중도이탈을 막기 위하여 교수-학생의 상호작용을 강화한 결과(변기용, 이석열, 송경오, 변수연, 2014)로, 사제관계의 경험지표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배상훈, 박인심, 강민수, 윤수경, 전수빈, 2016; 유현숙, 임후남, 서영인, 신현석, 고장완, 2012). 따라서 지방대학생들의 교수와의 상호작용 경험은 어떠하며 이것이 학업 유지에 미치는 영향 또한 심층적인 질적 탐색이 필요하겠다. 반면, 선후배관계 및 교우관계는 대학생활적응과 유지에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되고 있는데(최길성, 이용창, 2013), 학생들이 소속감을 갖고 학문적, 사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을 느낄 때 학업중단의 위험은 낮아질 수 있었다(Tweedell, 2000). 반면, 선후배관계 및 교우관계에서의 어려움이 학업중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안나영, 2016)가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지방사립대학 학생들의 학업중단과 관련된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가정의 경제적 사정은 학업 중단을 예측하게 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지적됐다(김수연, 2010; 김안나, 김성훈, 2010; 안나영, 2016; 최길순 2010). 가정의 경제력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편입 및 전과 등의 대학이동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최

보금, 2010)가 있었다. 반면, 가정의 경제적 지위가 학업 지속 유무와 연관이 없다는 연구 결과(김수연, 2006)와 경제적 어려움이 제적 이후 재등록 의사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이석열, 2008) 또한 있어 가정환경의 물리적 지지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지방사립대학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환경에 속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학생을 둘러싼 가정환경의 영향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반면 가정에서의 정서적 지지를 대표할 수 있는 부모와의 애착경험 및 정서적 안정의 정도는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이것이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구는 부족한 실정에 있어 이 주제를 심화한 탐색적 연구 또한 필요하다.

학업중단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학업중단의 요인을 개인의 특성과 심리적 어려움, 개인을 둘러싼 가정, 조직, 사회의 부정적 역동에 관심을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중단 학생은 학업 성취도가 낮고 진로 및 목표의식이 부재하며, 가정 사회 환경적 배경이 열악할 것이라는 전제를 한다. 하지만, 최근 학업 성취도가 높고 진로와 목표의식이 분명한 학생들의 학업 중단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학업중단을 결핍 모델이 아닌 선택의 문제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박희민, 2009). 이에 따라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질,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의 제공 및 환경적 편의성 등이 학생의 대학 선택 및 학업 유지 요인으로 주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신입생들이 진학 후 자신이 선택한 대학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학업을 유지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Hoffshire, Ralstion.,

& Lacho, 2013; Wilcox, Winn., & Fyvie-Gauld, 2005),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대학들의 다각적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Sedman, 2005).

지방사립대학 학생들의 학업중단과 관련된 대학자체의 요인으로 자신이 선택한 전공 분야의 취업전망이 불안정하고, 대학의 평판이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할 경우 편입 및 자퇴 등의 학업중단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선, 김광현, 2016; 오영재, 2005). 대학의 사회적 평판은 자신이 속한 대학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학교생활의 만족감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덕로, 이성석, 2002). 또한, 대학입학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업유지율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입학의 문턱이 낮은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높게 나타났다(이병식, 2003). 대학의 소재지는 학업중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김성식, 2007; 김수연, 2010)가 있었지만, 대학의 소재지와 거주지의 일치 여부가 학업을 유지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김수연, 2006)도 있었다. 또한, 대학유형에 따른 학업중단 비율은 차이를 보였는데 전문대학보다 4년제 대학의 학생들이 편입 및 전과 등의 학교이동을 고려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김수연, 2006; 김성식, 2007). 이러한 대학의 요인들이 지방대학생들에게는 입학 이후 학업을 유지하고 중단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의 대학생활 만족감을 높이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은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차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Fredricks, Blumenfeld, & Paris, 2004). 달리 말해, 대학 서열화로 인해 자신이 입학한 대학이 그

리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에게 입학 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정서적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면 학업을 지속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Tinto(2006-2007)는 대학이 독자적인 교육기관으로 기능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과거 교육경험과 가족 환경에서 비롯된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교육경험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론에서 행동으로(moving from theory to action) 옮겨가 더욱 적극적인 교수-학생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수 역량 강화를 강조한 것이다. 교수방법 또한 활동을 통한 학습(active learning)을 제공할 때 학생의 학업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Braxton 외, 2008). 하지만, 더욱이 중요한 것은 대학생활 만족감은 개인마다 각기 다른 주관적 평가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학생 개인이 어떤 기대와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이관형, 장용규, 안현미, 2000).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지방사립대학 학생들의 학업유지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의 학생들에 비해 어려울 수 있고, 학업중단의 요인 또한 다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의 학업중단과 관련된 질적 탐구는 부족한 실정이지만, 최명선, 강지희(2008)가 연구한 대학생들의 중도탈락에 기여한 요인들을 탐색한 연구는 의미 있는 요인들을 도출해 준 데 의의가 있었다. 하지만, 각 요인들의 상호작용적 측면을 드러내 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 학업중단을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 어떻게 학업 유지와 중단에 기여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지방대학 신입생들의 중도이탈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하여 그 요인을 도출한

연구 결과(백은주, 남민우, 이해듬, 2015)는 차 지하고서라도 고학년(3, 4학년)에서 학업중단을 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지방사립대학 고학년 학생들의 학업유지의 어려움을 발견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녀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의 적응과 관련된 연구들(김영도, 박상일, 2016; 박정애, 진미경, 2015)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대학생활적응을 훨씬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독립을 더 잘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대학 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생활에 호감을 더 많이 느낀 결과로 이해될 수 있었다. 서울 및 수도권 대학과 비교하여 지방 대학의 경우 학생들은 주로 기숙 생활을 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남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이 더 높을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지방사립대학에 재학한 남학생들이 고학년에 이르러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요인 및 과정에 대한 탐색은 부족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사립대학에 재학했다가 고학년에 학업을 중단한 남학생들을 인터뷰하여 입학 이후 심리 사회적 변화의 과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 설정한 연구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지방사립대학 학업중단 남학생들의 대학 입학 이후의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지방사립대학 고학년 남학생들의 학업중단의 과정은 어떠한가?

## 방 법

### 근거이론

본 연구에서는 지방사립대학 고학년 학생의 입학 후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과정을 탐구하고자 질적 연구 분석 방법 중 근거이론을 활용하였다. 근거이론을 활용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선행연구 결과 지방사립대학 학생의 학업중단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이론적 틀이 없다는 한계점을 발견하였다. 진로 전환과 관련하여 다양한 진로이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학, 그중에서도 지방사립대학이 갖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학업중단의 위험이 높은 학생들이 고학년까지 학업을 지속하다가 중도에 이탈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한국적 상황의 특수한 시대적, 환경적 맥락을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방사립대학 고학년에 제적된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어떠한 심리내적 경험을 통해 학업중단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는 데 근거이론이 적합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학생의 입학 후 고학년에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밝히고 그 요인들을 설득력 있게 해석할 수 있는 일정한 이론적 틀로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근거이론은 여러 질적 연구 분석 방법 가운데서도 하나의 사회적 현상(사건)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적 기틀을 구축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 본 연구의 주제는 지방대학 학생의 학업중단의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질적 연구 분석 방법 가운데서도 근거이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 요인의 상호작용적 흐름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선행 연구에 제시했듯이, 학업중단은 정체된 하나

의 사건이기보다 과정적 이해가 필요함을 제기했다. 따라서 지방대학 학생들이 입학 시기부터 입학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업중단에 이르게 되는지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는 근거이론이 가장 적합하다. 셋째, 지방대학 학생의 학업중단 결정은 입학 직후에서부터 1년, 2년, 혹은 졸업 직전에 이뤄지기도 한다. 학업중단을 결정한 학생의 심리내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이 각각 어떠한 상호작용적 흐름 속에서 관여하는지를 밝혀 줄 수 있는 질적 연구 분석 방법으로는 근거이론이 가장 적합하다. 근거이론의 개방코딩, 축코딩 등의 방법을 통해 학업중단에 관여하는 각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해 나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질적 연구 분석에서는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기 때문에, 참여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풍부한 자료가 모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터뷰 진행자는 학업중단 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 입학 당시에서부터 대학 입학 1년의 과정, 그 이후의 경험들을 떠올려 상세하게 진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분석 방법 가운데서도 근거이론의 분석 방법을 제시한 Strauss & Corbin(1998)의 질문방식인 “어떻게(how)”와 “만약 .. 한다면(if)”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심도 깊은 이야기들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입학이전의 경험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을 선택하면서는 어떤 생각과 마음이 가장 많이 드셨나요?”, “만약 그때 다른 대학을 선택했다면 무엇이 달랐을까요?”, “원하지 않던 대학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 2학년까지 대학생활을 이어 나가실 수 있었나요?”, “만약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어려움을 대학에서 도와주었다면 어떤 도움을 받고 싶으셨을까요?”, “만약 대학이 변화한다면 어떻게 바뀌면 좋겠습니까?”, “현재 내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후배에게 조언한다면 어떤 말을 전해 주고 싶으신가요?”, “만약 상황이 변화해서 재입학을 한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한 자료는 2주 이내에 모두 전사하였고, 질적 연구 분석방법의 코딩 절차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반복적으로 읽어 나가며 동일한 개념과 범주를 묶어 나갔다. 이를 통해 총 185개의 개념과 54개의 하위 범주, 18개의 상위 범주를 도출하였고, 축코딩 분석을 통해 원인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매트릭스 모형을 제시하였다. 축코딩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중심현상을 다뤄나가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변화에 따라 학업중단의 과정을 도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해 총 7단계를 제시하였다.

####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지방사립대학에서 3, 4학년 시기에 제적당한 경험이 있는 남학생 15명이었다. 학번은 10학번이 2명, 11학번이 5명, 12학번이 4명, 13학번이 2명, 19학번이 1명이었다. 지역분포는 서울이 3명, 경기도가 8명, 대전이 1명, 강원도가 1명, 충북이 4명, 충남이 1명, 전남이 2명이었다.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3학년에 제적되었고, 4학년에 제적된 학생은 1명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공무원 준비를 하는 학생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을 한 학생이 7명, 영업 및 창업을 한 학생이 3명이었다. 타대학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은 1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사례	학번	지역	제적학년	현 상황
1	19	충북	3학년	편입준비
2	11	경기	3학년	취업
3	12	충남	3학년	취업
4	11	서울	4학년	취업
5	10	경기	3학년	공무원준비
6	13	경기	3학년	취업
7	11	경기	3학년	창업
8	11	충북	3학년	공무원준비
9	10	경기	3학년	공무원준비
10	12	전남	3학년	영업
11	11	서울	3학년	영업
12	10	대전	3학년	취업
13	12	경기	3학년	취업
14	12	강원	3학년	공무원준비
15	13	충북	3학년	공무원준비

명이었다. 연구 참여자 특성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는 참여의사를 밝힌 학업중단 학생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하였다. 충청북도 소재지 한 대학의 2017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학업중단 학생 명단을 받아 문자와 전화를 통해 연락을 취하였고, 본 연구의 취지를 밝혀 연구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했다. 학생들의 명단은 입학 당시 정보공개에 동의한 학생들로 한정하였다. 문자 및 전화로 연결이 된 약 200여 명의 학생 중 1/10가량이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 듣고 참여를 승낙

하였다. 참여자 모집 당시 우선으로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 참여자들의 인적사항 비공개 및 연구 철회의 권리 등을 상세히 안내하였고, 소정의 참여비가 지급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전화로 연결된 대다수의 학업중단 학생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자신이 떠난 학교의 관계자가 연락을 한 점, 아르바이트 및 시험 준비 등의 개인적 사정들로 인해 참여가 어렵다는 점 등이 있었다. 참여에 응하여 준 대부분의 학생들은 남성 20대 중후반으로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현직 근무자인 경우가 많았다. 참여자 모집은 이론구축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모아졌다는 판단이 설 때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총 9개월 동안 참여자 모집이 이뤄졌다.

인터뷰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뤄졌다. 인터뷰 모집에서 참여를 승낙한 경우 일주일 이내 만남 약속을 잡았고, 참여자들이 있는 지역으로 연구자가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1시간에서 2시간가량 면대면으로 진행되었고,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통화를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인터뷰는 참여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스터디센터(TOZ 등) 및 카페에서 진행되었고, 인터뷰 시작 전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 연구 참여로 인한 불이익 및 불편사항의 감지 시 즉각 철회할 수 있는 참여자들의 권리에 대해 안내한 후 본 내용을 담은 연구 설명서와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인터뷰 중이라도 심리적 어려움이 느껴질 시 인터뷰를 즉시 중단하고, 정신건강 및 심리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과 치료와 관련된 비용은 연구자가 부담할 것이라는 안내사항을 전달하였다. 연구자는 학업중단의 위기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대학생활 적응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 대안을 마련해 가는데 본 연구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연구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참여자들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인터뷰 종료 후 참여자들은 소정의 참여비를 즉시 제공 받았고, 연구 이후에도 연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안내받았다.

#### 연구과정 평가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삼각 검증법(triangulation

of observers)을 활용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분석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 집단과 본 연구에 참여한 학업중단 학생 집단, 본 연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지방사립대학의 학업중단 학생 집단을 삼각으로 활용하였다. 먼저 연구 분석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로 2명의 연구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는데, 한명은 질적 분석 중에서도 근거이론 분석에 대한 전문적 피드백을 제공해 주었고, 다른 한명은 본 연구 주제에 관심을 갖고 질적 분석을 해 본 경험을 토대로 피드백을 제공해 주었다. 외부 전문가들의 피드백 중 근거이론 개방코딩의 유사한 개념을 하나로 통일하고, 유형분석에서 사례에 대한 이해를 첨가하라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과정을 거쳤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피드백을 참고하여 성별 차이에 따라 요인의 관여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 다섯 명에게 본 연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결과가 자신의 학업 중단과 관련된 과정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었다고 하였다. 다만,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관계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어 저학년에는 잘 적응하다가 이후에는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경험이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남성의 경우 군대라는 문제가 중요하게 관여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가 포함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점을 언급해 주어, 해당 내용 또한 분석에 반영하여 제시하였다. 또 다른 참여자는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한 다른 학업중단 학생들이 있었다는 점이 안도가 된다는 피드백을 전달해 주었고, 자신이 학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언제든 학업을 다시

이어갈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언급해 주었다. 따라서 학업 중단이 하나의 사건이 아닌 과정적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점과 학업 중단은 이후에라도 언제든 학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개념적 이해가 필요함을 함께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연구 참여자 선정과정에서 전화로 연결이 되었던 또 다른 학업중단 학생 세 명에게 본 연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결과가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해 준다는 피드백을 전달해 주었다.

## 결 과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자료의 범주화 및 분석 결과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라 자료를 범주화한 결과, 총 183개의 개념과 54개의 하위 범주, 18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원인적 조건에는 '나는 조건에 맞추어 진학함', '어쩔 수 없이 입학함', '타의와 외적조건에 따라 진학함'이 도출되었고, 맥락적 조건에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 '정서적, 경제적지지 및 독립정도'가 도출되었다. 중심현상은 '즐거운 대학생활 저변에 지연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출현함'으로 명명하였고, 중재적 조건에는 '진로성숙 정도', '교우관계 효능감 정도', '학업 효능감 정도', '애매모호함을 견디는 힘의 정도'가 도출되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에는 '꿈성취를 위한 준비에 매달리기', '타대학 재입학을 준비하기', '회피하기', '흥미가 생긴 일에 몰두하기', '생각 없이 학교 다니기', 결과에는

'후회와 미결정상태의 지속', '대학졸업장이 꿈을 향하여 정진함', '열린 상태로 현재는 학업을 중단함'이 도출되었다. 이 결과에 해당하는 각 개념 및 하위범주와 상위범주를 도표화하여 제시하였고, 축코딩의 매트릭스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과정분석 결과

축코딩의 마지막 단계로 과정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방사립대학 남학생의 학업 중단 과정은 크게 7단계로 나타났다. 과정분석은 근거이론 분석 중에서도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통해 도출된 중심현상을 다뤄나가는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Strauss & Coebin, 1998).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입학 후 대학 생활에서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지만 학년이 높아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게 되어 이를 다루기 위한 전략을 구사한다. 이 전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재적 조건이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구사하도록 만든다. 초반 과정에서는 교우관계의 효능감이 주요하게 관여하고, 중반 과정에서는 진로성숙도와 학업 효능감이, 후반 과정에서는 애매모호함을 견디는 힘의 정도가 주요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으로 즐거움과 불안의 경계에 서 있던 참여자들은 소속감을 느끼지만 불안을 다루기 힘든 과정에서 생각 없이 학교를 다니거나 관계의 어려움이 중첩되면 학교생활을 비롯해 모든 활동을 회피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그러면서 진로와 관련된 고민을 더욱 긴밀하게 맞닥뜨리고, 현재 학교생활을 잠시 중단한 상태에서 타 대학으로 재입학을 준비하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표 2. 개념들의 범주화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패러다임
편입하여 더 좋은 학교에 입학함 제일 가고 싶던 학교, 학과에 입학함 집에서 가깝고, 등록금 부담이 적은 것이 좋아 입학함	원하던 대학에 입학함	나은 조건에 맞추어 진학함	
대학생활 자체에 대한 로망이 있었음 상고출신이었지만, 진학을 하여 좋았음 대학졸업이 향후 직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진학함	진학 자체가 좋았음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가까운 곳에 입학함 수시 때 붙어서 어쩔 수 없이 입학함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부담 적은 곳을 선택함	어쩔 수 없이 입학함	어쩔 수 없이 입학함	<b>원인적 조건</b>
성적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입학함 서울 쪽 학교가 안 되어서 입학함 재수 했지만 실패하여 입학함	원하던 곳이 안 되어 입학함		
학과는 마음에 드나 학교는 마음에 안 들었음 대학 캠퍼스 이전 계획에 희망을 걸고 입학함	아쉬움과 희망을 갖고 입학함	타의와 외적조건에 따라 진학함	
부모님이 대학만 나오라고 하여 입학함 한국은 대학이 필수이기 때문에 진학함 남들이 공부하고 대학을 가기 때문에 자신도 진학함 친구들이 입시준비를 하여 자신도 급하게 준비함	타의에 의해 준비 없이 진학함		
기숙사, 운동시설이 좋고 불편하지 않았음 강의실 등 전반적으로 시설이 좋았음 식사가 좋았음 장학금을 많이 주는 것이 좋았음 개인 공간과 시간이 없는 기숙사가 불편했음 주변 놀거리가 많이 부족함 학교 자체가 조용하고 정적인 느낌을 줌 생각보다 훨씬 촌(동네) 느낌이 듦	학교 시설 및 행정에 대한 만족도		
학과 전체 단결이 잘됨 선·후배 위계가 너무 경직되어 있음 학과 규칙이 너무 심했음 학과 자체의 결속력이 부족함	학과 분위기에 대한 만족도		
책임지도교수에 대해 무관심 함 담당교수 배정은 북분북임(부러움VS안타까움) 책임지도교수와의 만남이 부담스러움 교수를 통해 상처를 받음 교수는 학생에게 관심 없어 보임 교수이외 다른 분들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여러 명이 함께 모이는 교수와의 만남이 무의미했음 책임지도교수를 통해 도움을 많이 받음	사제 문화에 대한 만족도	학교에 대한 만족도	<b>배타적 조건</b>
동아리 홍보가 부족함 각자 알아서 동아리, 과외 활동을 해야 함 편입생에게는 동아리 활동의 기회가 더욱 적음 축제도 한정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쉬움 취업, 멘토링 등 활동이 도움이 되었음	동아리 및 과외 활동에 대한 만족도		
**출신이라 통학이 편했음 통학 자체가 많이 힘들었음 학기 후반이 되면 점점 통학이 힘들었음	통학에 대한 만족도		

표 2. 개념들의 범주화

(계속 1)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패러다임
난이도가 너무 쉬운 과목은 장단점이 있었음 1학년 때 교양과목을 들은 기억이 없고 전공과목으로 시간표가 다 짜여 있었음 진로와 전혀 상관없는 철학을 배우는 게 의아했음 예상과 다르게 컴퓨터 작업이 많아 불만스러웠음 해당 직종관련 수업이 아니라 실망스러웠음 원로교수님들의 어려운 말(한자 등)이 어려웠음 이해가 아닌 그냥 외워서 시험을 보는 것이 싫었음 관련분야의 유명인사(전문가)를 못 본 것이 아쉬움 대학의 주관식 문항이 유연해서 좋았음	수업에 대한 만족도	학교에 대한 만족도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춰 비전을 제시해 주면 좋겠음 인강에 나오는 강사를 초청해 주면 좋겠음 공무원 준비를 도와주면 좋겠음 지방이 아닌 서울진출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음 자격증준비를 도와줘서 좋았음	진로, 취업지원에 대한 만족도		맥락적 조건
가정 형편이 어려워 짐 기숙사(자취) 등 생활비 충당이 어려웠음	경제적 지지의 어려움		
가족의 갈등, 분열이 심했음 부모님 대신으로 가족(동생들)을 케어 해야 했음	정서적 지지의 어려움		
부모님께 경제적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함 생활비 등을 알바로 충당함	경제적으로 독립하려 함	정서적, 경제적지지 및 독립 정도	
스스로 학교, 학과를 선택함 대학 생활을 스스로 계획하고 조절함 힘들어도 스스로 이겨내 보려고 함	정서적으로 독립적임		
타인의 의견을 많이 따르는 편임 중요한 결정을 타인(부모님, 친구)에게 맡김	정서적으로 의존적임		
학년이 높아지면서 재미만을 생각할 수 없었음 친구들과 너무 재미있게 지내다가 같등이 생기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함 수업은 안가고 친구들과만 만나는 생활이 답답함 재미있게 지내던 친구들이 휴학을 하니 자신도 휴학을 해야 될 것 같았음	재미만을 찾을 수 없는 대학생		
미래에 대한 걱정이 시작되었음 군대 말년에 진로관련 걱정이 많이 되었음 부모님께 대한 미안함, 걱정이 커짐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생김 생존 느낌이 들 정도로 치열해짐 이제는 고생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	즐거움 대학생할 저변에 지연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출현함	중심현상
대학은 별개라는 생각이 들 학교 및 교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짐 교수만 따르면 성공할 것이란 믿음이 깨짐	학교, 교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짐		
알바를 하면서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생각을 함 일을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더 고민함 (실습 현장) 타락한 모습이 실망스러웠음	학교와 다른 현장을 경험함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위가 필요한지 의문이 들 대학은 시간낭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대학은 자신의 길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겨감	대학졸업장에 대한 물음이 생김		

표 2. 개념들의 범주화

(계속 2)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패러다임
가슴 뛰게 하는 꿈(직업)을 찾음 우연한 기회에 일을 하며 직업의 확신을 얻음 이게 아니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생김 한 수업을 통해 우연히 하고 싶은 일을 찾음	진로 확신이 생김		
뚜렷한 진로 목표가 생기지 않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음 아무리 찾아보아도 하고 싶은 게 없었음 사회적으로 인정 못 받는 쪽에 관심이 있어 갈등함	진로 미결정 상태가 지속됨	진로 성숙정도	
공부하다보니 전공이 적성에 잘 맞았음 원래 적성이었던 전공이라 잘 맞았음	적성과 전공이 잘 부합함		
원했던 전공이었으나 적성에 잘 맞지 않았음 적성과 상관없이 성공 가능한 전공을 선택해야 함	적성과 전공이 부합하지 않음		
친화력이 적고 내성적임 친구들이 안 챙겨줘서 힘들었음 편입생은 편입생끼리라는 차별의식이 생김 주류에 끼지 못함(족보 못 얻음, 자리매치 밀림 등) 친구들이 모두 군대를 가서 외톨이가 되었음 METOO 운동 때문에 여학우에게 못 다가감 군대 다녀오니 같이 다닐 후배·친구가 없었음 복학을 해보니 친구들이 없어 혼자 다님 (기숙사 탈락 후) 통학으로 교우관계가 줄어 소외됨 친구들이 나를 이용해 먹는 것 같았음	교우관계 효능감이 낮음	교우관계 효능감 정도	
내가 필요할 때 친구들이 잘 도와줌 친구들이 나를 잘 따름 중개 역할을 잘 하여 효능감이 높아짐	교우관계 효능감이 높음		중재적 조건
학회장, 과대 등 리더 역할을 하며 자신감이 생김 대학에서 성적이 잘 나와 놀랐음 일생 처음 경험한 1등을 놓치고 싶지 않아짐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를 경험함		
공부하다보니 자신감이 붙음 공부를 하다 보니 하면 되겠다는 희망이 생김 교우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공부를 더 하게 되었음	학업의 자신감이 서서히 생김	학업 효능감 정도	
적성불일치로 전공공부를 하면서부터 힘들어 짐 전공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함 수업에 참여하는 것부터가 힘들었음 주관식 시험 방식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음 학사 경고가 반복되어 자신감이 더욱 하락함	공부가 힘들었음		
완벽주의로 불안이 높아서 더 못하게 되었음 다른 친구들은 취업하는데 자신은 못하니 불안했음 마음은 조급한데 뒤처지는 것 같았음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음 학점의 압박을 견디기 힘들었음 현실과 자신의 이상을 타협하지 못함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신을 견디지 못함 전공에서 느껴지는 열등감을 견디기 힘들었음 자신은 뭘 해도 안 되니까 해볼 생각을 안 하게 됨	(진로, 학업 관련) 견디지 못함	에메모호함을 견디는 힘의 정도	
같등이 생기면 잘 못 견딤 자신의 가치관을 벗어난 관계를 용납하지 못함 혼자인 것을 견디기 힘들	(관계 관련) 견디지 못함		

표 2. 개념들의 범주화

(계속 3)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패러다임
이 시간도 지나가리라 생각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함 전공과 적성이 상이한걸 알게 됐지만, 참고 유지함	에매모호함을 견뎌	에매모호함을 견디는 힘의 정도	<b>중재적 조건</b>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에 등록함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인강을 열심히 들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에 최선을 다함	자격증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꿈 성취를 위한 준비에 매달리기	
휴학 후 공무원 준비에 돌입함 공무원 준비 학원, 기숙학원 등 도움을 받음 홀로 온라인 강좌를 들으며 시험 준비를 함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진하기		
통학이 쉬운 학교를 알아봄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이 덜한 학교를 알아봄	물리적 필요에 따르기	타대학 재입학 준비하기	
학교 name vale를 높여 도전하기 원하는 전공 학과에 도전하기	반수를 계획하기		
수업에 안감 학교 연락을 피함 기숙사/자취방에만 있기	학교에 안가기		
친구들을 멀리하기 교수님을 멀리하기	관계를 피하기	회피하기	<b>작용/ 상호작용 전략</b>
친구 따라 자신도 입대를 선택함 관계, 학업이 어려워 입대를 결정함	입대하기		
현장실습 일이 잘 맞아 그 일만 계속함 우연히 하게 된 일이 잘 맞아 그 일을 계속함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음	흥미가 생긴 일에 몰두하기	
일하며 돈 버는 재미를 느낌 어린 나이에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음	돈벌이에 흥미를 느낌		
수업은 안가고 친구 량만 늘기 출석은 하지만 수업에 집중하지 않기 진로, 취업에는 전혀 관심두지 않기	학업에 소홀하기	생각 없이 학교 다니기	
친구가 깨워주면 수업에 가고 아니면 안가기 친구가 짜준 스케줄에 맞춰 학교생활하기 친구가 있으면 학교에 가고 친구 없으면 안가기	친구에게만 의존하기		
빨리 그만두지 못하고 지연시킨 것이 후회됨 대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아쉬움 저학년부터 비전설계를 안 해줘서 방황함	이전 대학생활이 후회됨	후회와 미결정상태의 지속	
누군가 이끌어 주는 대로 할 것 같음 돌아갈지 자퇴할지 결정하지 못했음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제적상태로 둘 예정임	결정하지 못했음		
창업한 현재 일에 매진할 계획임 돈을 많이 벌어 취직한 친구들보다 성공할 것임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할 것임	대학졸업장 없이 꿈을 향하여 정진함	<b>결과</b>
원하는 취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학위는 필요 없음 공무원 시험에 끝까지 도전하고 대학에는 마음 없음	대학 학위와 목표를 분리함		
이후 필요하면 사이버대 등에서 학위를 취득하겠으나 현재는 아님 이후 일 관련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나 현재는 생각이 없음	학위 취득의 생각은 있으나 현재는 중단함	열린 상태로 현재는 학업을 중단함	
플랜B로 학위취득을 고려해 보겠음 목표를 향해 끝까지 도전해 보고 안되면 학교로 돌아가겠음	마지막 대안으로 학업을 고려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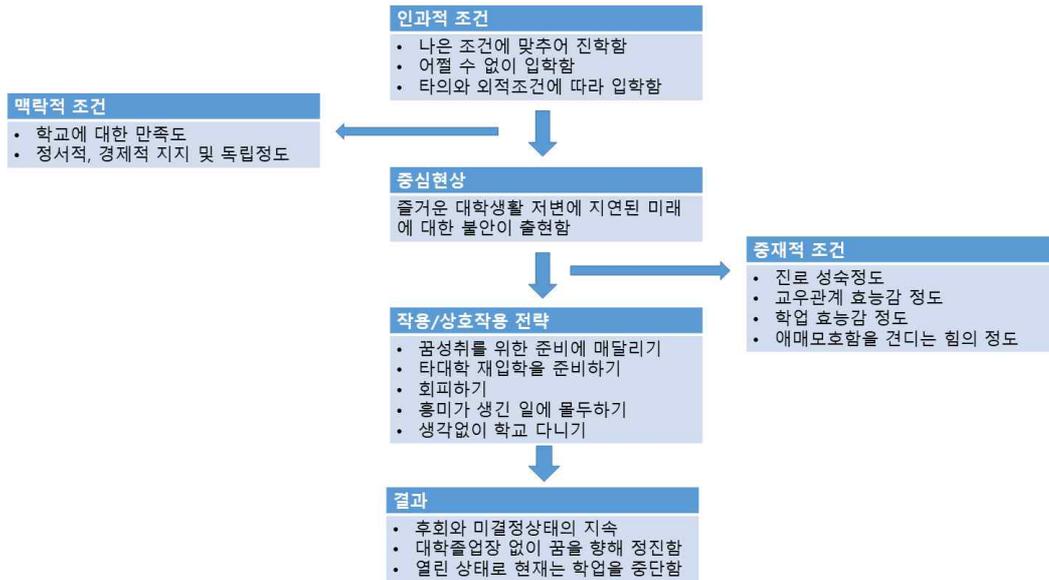


그림 1. 지방사립대학 남학생들의 학업중단과정 패러다임 모형

거나 공무원시험 준비 및 흥미가 생긴 일에 몰두하는 경험을 한다. 그러면서 어느 것도 명확하지 않은 애매모호함을 잘 견디어 내었던 참여자들은 꿈 성취를 위한 준비에 매달리게 되고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게 된다.

이러한 작용을 통해 학업중단 학생들의 변화과정은 ‘소속감 갖기’, ‘재미 찾기’, ‘멈춰 생각하기’, ‘(바깥)세상 경험하기’, ‘진로 확정하기’, ‘몰두하기’, ‘학업 마무리 짓기’의 과정으로 이뤄졌다. 이 7단계는 순차적으로 이뤄지지만 중심 현상을 다뤄나가는 증재적 조건의 작용에 따라 한 단계에 오래 머물거나 이전 단계로 회귀하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2번째 단계인 ‘재미찾기’ 단계에서 교우관계 효능감이 낮으면 그 전 단계인 ‘소속감 갖기’로 회귀하고, 4번째 단계인 ‘(바깥)세상 경험하기’에서 진로성숙 정도가 낮으면 전 단계인 ‘멈춰 생각하기’로 회귀하며, 6번째 단계인 ‘몰두하기’에서 학업 효능감이 낮으면 다시 ‘(바깥)세

상 경험하기’로 회귀하기도 한다. 각 단계의 특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참여자들의 기술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소속감 갖기 단계

첫 번째 단계인 소속감 갖기 단계는 참여자들이 대학 입학 후 학과 분위기를 살피며 자신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친구들과 사이에 소속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는 학과 자체의 분위기가 큰 역할을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챙기며 한명도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결속력이 강한 학과에서는 신입생이 큰 소속감을 갖게 되어 학교 적응의 어색함과 불안감을 다소 경감시킬 수 있었다. 반면, 학과의 인원이 많고 오리엔테이션 등의 입학 초기 프로그램을 통해 뭉쳐진 몇몇 무리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는 문화를 갖고 있는 학과에서는 관계 기술이 부족하거나 입학 초기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을 소외시

킬 수 있었다. 이러한 소속감 갖기 단계는 신입생 뿐 아니라 학교를 옮겨 온 편입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한다. 독특한 결과 중 하나는 편입생들이 학과에 속한 듯 속하지 않은 소속감과 소외감을 동시에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편입생들은 같이 편입해 온 학생들끼리의 문화를 형성하여 편입생들끼리의 소속감을 느끼지만, 학과 안에서는 기존 재학생들과의 교류가 적어 무리에 끼지 못하는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들이랑 가까워지고, 뭐라 할 때만 선배들이 뭐라 했었지 챙겨줄 때는 또 잘 챙겨줘 가지고. 소속감 같은 게 많이 커진 게 좋은 것 같아요. (사례5)

편입생들하고 지내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기존 학우들하고 지내기에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례1)

### 재미 찾기

두 번째 단계인 재미 찾기는 학과 및 교우 관계에서 소속감을 느낀 참여자들이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이어나가는 과정에 해당한다. 이 단계 참여자들은 학업에 매진하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하는 생활 자체에 흥미를 느끼고 친목을 다지며 다양한 활동 속에서 추억을 쌓아 나간다. 지방대학의 특성상 기숙 생활을 주로 하는 참여자들은 같은 학과, 룸메이트가 된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에 집중한다. 이 과정을 통해 대학 진학에 동기가 없거나, 원하지 않던 대학에 들어왔다는 실망감이 깊었던 참여자들도 물 흐르듯 대학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1학년 학생들의 커리큘럼은 대체로 학과마다 동일하게 짜여진 경우

가 많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저녁 술자리를 함께 하는 등 다양한 활동 속에서 재미를 찾아 나간다.

당시에 \*\*대는 유명한 학교도 아니었고, 내가 왜 이런 학교를 와야 하나.. (중략) 엠티나 오티 같은 것도 전혀 참석을 안 하고, 그냥 아예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중략) 학교를 갔는데 1학년 1학기랑 비슷했는데 후배들이 먼저 다가와 주고 다음 학기에는 후배랑 같이 원룸을 잡아서 같이 지내고, 여자 친구도 생기고 이리다 보니까 학교에 적응을 했었는데.. (사례7)

소위 놀고먹는 대학생활. 1년 정도는 진짜 편하게 다녔고요, 2학년 때는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학교 임원? 과 임원하면서 재미있게 다녔던 거 같아요. (사례3)

### 멈춰 생각하기 단계

세 번째 단계인 멈춰 생각하기는 참여자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재미를 찾는 학교생활 속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 기여하는 다양한 경험 속에는 교우관계, 사제관계에서 갈등과 균열을 경험한 것, 1학년이 끝나갈 즈음 학우들이 대부분 휴학을 하는 학과 내 분위기, 유예시켜두었던 자신의 전공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참여자들은 단순히 재미만을 따라 학교생활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인간관계에 보다 큰 삶의 의미 부여를 하고, 교우 및 사제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참여자들은 학교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에 대해 강한 회의감을 느낀다. 반면 관계의 큰 어려움이 없고, 학교생활도 지속하려고 했던 참여자들은 학과 내 분위기에 휩쓸려 휴학을 결정한 친구들에 편승해 자신도 휴학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휴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멈춰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다. 특히 멈춰 생각하는 이 단계에서 남학우들은 군대를 다녀오는 전후의 마음가짐 및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다.

군대 가기 전에는 노는 기억 밖에 없어서.. (중략) 군 생활하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죠.. 이제 제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마냥 놀 수만은 없으니까.. (사례6)

차라리 선배들이랑은 괜찮은데 교수님들이랑 만나면은 재는 왜 학교는 나오나 이렇거 같기도 하고.. 두문분출하다가 교수님이랑 마주치면 교수님이 딱 나오는거 같으면은 숨고 그랬거든요.. 그냥 얼굴을 못 보겠는거죠.. (사례2)

#### (바깥)세상 경험하기 단계

네 번째 단계인 (바깥)세상 경험하기는 학교 생활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회생활경험을 하게 되는 과정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는 남학우가 여학우에 비해 갖는 성별의 차이가 발생한다. 남학우는 '군대' 생활이 관여하기 때문에 여학우에 비해 약2년의 기간이 더 늦춰지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복학 후 소속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관계의 효능감이 낮았던 참여자들은 내적 갈등이 심화 되고 진로와 관련된 고심 속에서 학업을 유예시킨다. 또한 남성에게 부과된 가부장적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군대 말년이 되면 자신의 진로를 더욱더 치열하

게 고민하면서 제대 이후 진로를 확정하기 전까지 새로운 사회경험 속으로 뛰어들다. 이 과정에는 대부분 주변 사람들의 권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친구 또는 지인의 소개로 일을 시작하기도 했고, 학과 교수님의 추천으로 인턴을 시작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던 일이 자신의 본업이 되기도 했는데, 우연히 얻은 좋은 기회에 정규직 자리를 얻기도 하였고 학생의 신분으로는 별기 힘든 액수의 돈벌이를 해보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원래 실습으로 왔어요. \*\*\*쪽에 교수님이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리조트 쪽 실습하다가, 친구가 우체국 쪽 할 생각 없냐고 해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2년 동안.. (사례4)

영업직으로 저 혼자 시작했는데 돈을 어느 정도 벌게 돼서 이것도 경험이니깐 1년 정도 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하다가 잘 된 거죠. 그래서 쪽 하게 됐어요. (사례10)

#### 진로확정하기 단계

다섯 번째 단계인 진로확정하기 단계는 참여자들이 앞선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진로를 확정하게 되는 과정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는 참여자들의 적성과 일을 통해 경험한 것, 사회적 욕구 및 직업적 가치관 등이 관여한다. 앞선 사회경험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의 기회를 얻은 참여자들과는 별개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한국의 사회적 흐름에 편승하여 공무원 준비를 해 보는 것으로 마음을 굳힌다. 학교생활을 중단하

고 군대 및 사회경험을 한 참여자들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다는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진로를 확정한다. 특히,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한 참여자들 중에는 끝까지 해보겠다는 결심을 한 참여자들이 있는 반면, 공무원 준비가 실패하면 제2의 대안을 실천해 보겠다고 다짐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운 좋게 체육 선생님도 하고 싶었었는데, 또 소방관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역하고 소방관을 하자 생각해서, 전역할 때쯤에 자격증 따면 소방관 되기 쉬운 루트가 있어서 전역할 때쯤 계속 준비했어요. (중략) 막상 소방관되자 해서 공부하려고 하니깐 절실한 게 좀 커져가지고.. (사례5)

취업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 같아요. (중략) \* 장사를 시작하면서 제가 추구할 수 있는 걸 더 추구하고,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걸 잘 하고 있어요. (사례11)

#### 몰두하기 단계

여섯 번째 단계인 몰두하기 단계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확정된 진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관련 자격증 및 시험 준비에 몰두하거나 관심이 생긴 분야의 일에 몰입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공무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공무원 시험 대비를 위해 (기숙)학원을 찾기도 한다. 공무원 시험에 여러 번 실패한 참여자들 중에는 끝까지 시도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였고, 2차·3차 과정에서 아쉽게 떨어

진 참여자들은 끝까지 도전해 보기로 결심을 다지기도 하였다. 자신의 전공 및 학업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거나, 효능감이 저조했던 참여자들은 우연한 기회에 시작한 일이 적성에 잘 맞았던 경우 그 일에 더욱 매진한다.

최종까지 갔다 떨어져서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빨리 붙어야 되요. 아 빠 은퇴하면 더 힘들어 지니까 그 전에 해야죠. (사례9)

저는 학교 졸업하면서 진로를 찾은 게 아니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그쪽에서 찾은 거여서.. (사례12)

#### 학업 마무리 짓기 단계

일곱 번째 단계인 학업 마무리 짓기는 참여자들이 앞서 진로와 관련된 고심과 도전 속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학교 공부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거나 취업 준비를 했던 참여자들 중 꿈을 이룬 참여자들은 필요에 따라 이후 승진을 위해 학위를 취득할 생각을 했으나 현재로서는 학업을 잠정적으로는 중단하였다. 또한 현재 자신의 직업이 학위 취득과 큰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학업 중단을 결심한다. 특히, 학업과 크게 연관이 없는 사업, 영업, 서비스직 등에 몰두하였던 참여자들은 일에 집중하기로 결심하면서 학업을 중단한다.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휴학이 장기화되고 학교로 돌아가는 것에 두려움이 커진 참여자들 또한 잠정적으로는 학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다.

대학교 졸업도 하면 좋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꼭 대학교를 다녀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례13)

공무원 준비하면서 휴학한 게 3년 총 5년이니까 오래됐죠. 학교로 다시 학교를 가는 게 맞는가 싶고, 가서 똑같이 2년을 채워서 졸업을 한다면.. 겁나죠.. (중략) 학교로 돌아가는 건 0에 가까워지고 있죠.. (사례14)

## 논 의

본 연구의 결과 지방사립대학 고학년 남학생들의 학업중단의 과정은 총7단계로 '소속감 갖기', '재미 찾기', '멈춰 생각하기', '(바깥)세상 경험하기', '진로 확정하기', '몰두하기', '학업 마무리 짓기'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 분석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재적 조건에 해당하는 '교우관계의 효능감', '진로성숙도와 학업효능감', '애매모호함을 견디는 힘의 정도'가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중재적 조건이 관여하는 가운데 참여자들은 즐거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의 경계 사이를 조절하는 전략으로 생각 없이 학교를 다니거나 회피를 하고, 진로 고민에 맞서 타대학 입시를 준비하거나 흥미가 생긴 일에 몰두하며, 꿈 성취를 위한 준비에 매달리는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논의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이러한 일련의 과정 결과에서 나타난 중요한 요인들을 선행연구와 비교분석하고, 이전 연구들에서 밝히지 못한 새로운 결과를 제시하며, 향후 지방사립대학의 존립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을 중점으로 서술해 보고자 한다.

과정 분석의 결과 나타난 초기 '소속감 갖기', '재미 찾기'는 지방대학 학생들의 저학년 시기 대학생활 적응과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기능을 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지방대학의 특성상 기숙생활을 하게 된 경우가 많았는데, 대학입학 후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결속력 있는 관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의 이론적, 최예정(2014), 홍지인(2014)의 연구에서와 같이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지한다. 하지만, 지방대학의 특성상 학생들이 긍정적 관계 경험을 통해 소속감과 즐거움을 갖는 것은 지적 상호작용과 대학생활 몰입에 기여하는 역할을 뛰어넘어 입학 한 대학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심리적 기반이 됨으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결속력 있는 관계는 한 개인이 가진 관계의 욕구와 동기, 대인관계기술뿐 아니라 학교 및 학과의 분위기, 대학 입학 후 맺은 교우관계의 질적 경험, 갈등 해결의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가운데 이뤄진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최길순(2010), 최길성, 이용창(2013)의 연구에서 제시한 사제, 선후배 및 교우관계가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달리 말해, 학업의 유지와 중단은 누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의 차원을 넘어 학생의 내적 관계의 욕구와 동기, 갈등 해결의 경험 및 학교, 가정환경을 다각적으로 살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 준다. 이러한 관점은 선행연구에 제시한 Tinto(1975, 1967, 1992) 및 Rumberger(2004)의 견해와 같이 학업중단 학생들의 입학 이후

의 변화과정은 한 개인의 심리내적인 측면에서와 그를 둘러싼 사회 환경적 요인을 다각적으로 살필 필요성을 지지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교우관계와 사제관계가 학업유지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학업중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우관계는 Tweedell(2000)와 최길성, 이용창(2013)의 연구에서와 같이 대학 적응 초기 과정에서 학생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학업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고학년에게 있어 교우관계의 갈등 및 낮은 소속감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것이 낮은 진로성숙도 및 낮은 학업효능감과 함께 맞물릴 때 학업중단의 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지방사립대학의 경우 사제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연구된 주제 가운데 하나였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사제관계는 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김수연(2010), 이석열(2008) 등의 견해를 지지하며, 사제관계의 어려움이 학업중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김성식(2007), 박은선, 김광현(2016)의 견해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사립대 고학년 학생에게 있어 학업 중단 과정에서 관계적 요인이 촉발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진로 및 학업과 관련된 요인이 함께 상응하여 학업중단의 과정을 이끌어냄을 시사한다.

참여자들 중에는 입학 당시 자신이 원하는 대학, 학과에 입학하지 못한 실망감과 학업지속에 대한 동기가 저조했던 경우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학년까지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소속감, 관계에서의 만족

감, 즐거움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지방대학의 경우 학생들은 기존 삶의 터전을 떠나 지방 환경에서의 적응을 위하여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을 주지하여서 저학년 시기에는 결속력 있는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계기술이 부족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결속력이 탄탄한 학과 문화가 강력한 보호요인이 되어 학생의 중도이탈을 막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참여자들은 학교생활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다. 여러 관계에서의 갈등, 주변 친구들의 휴학, 전공 공부의 심화 및 부모님 경제사정의 악화 등 가정환경의 변화가 지연된 학업 및 진로 고민을 가중시킨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의 학업은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방사립대학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성취수준은 학업중단을 이끄는 데 더욱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선행연구에 소개한 임언, 박윤영(2011)의 연구에서와 같이 개인의 학업수준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업중단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지방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서울 및 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 비하여 위의 요소들이 다소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학업중단의 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특히,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경쟁률 감소에 따라 지방대학은 학생 충원율을 위하여 입학 기준을 하향시키고 실업계 고등학생들을 진학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중도이탈 현상을 더욱 심해질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김성식, 2007). 따라서, 지방사립대학에서는 기초학습능력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류 증진

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고학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 대부분은 입학 당시에는 뚜렷한 목표의식과 진로성숙도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단계의 소속감과 즐거움은 진로 및 학업과 관련해서 반드시 해야만 할 고민과 선택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험하게 된 새로운 일들은 대학과정에서 놓쳐선 안 될 중요한 고민을 하도록 이끌어 주었다. 특히 충분한 진로 탐색 없이 전공을 선택하여 전공적성의 불일치를 갖고 있던 학생들의 경우 초기 교우관계의 즐거움을 통해 대학생활의 만족감을 느끼지만 뒤늦게 시작한 진로탐색은 더욱 큰 압박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경제적 어려움이 중첩되어 생계를 위한 휴학을 결정하게 될 경우 진로탐색과 목표설정의 시간이 늦춰진 결과 학업을 포기하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적성의 불일치가 대학생활의 적응력을 낮추고(김성식, 2008; 박은주, 이해경, 2016; 안나영, 2016), 특히 뒤늦게 시작한 진로탐색은 학업중단의 위험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최길성, 2013)를 지지한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진로목표의식을 갖고 있었던 학생들 중에는 주변 가족 및 친구, 교수의 정서적 지지가 충분히 있었던 경우 휴학 이후에라도 다시금 학업을 이어나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의지를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8은 군 제대 이후 어려워진 가정 경제 사정으로 생계전선에 뛰어들었다가 장기간 지속된 학업중단으로 재복학을 어렵게 느꼈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 입대 전 교수님의 관심 어린 전화 한 통에 대한 기억이 재입학 동기를

갖게 해 주었다고 하였다. 이렇듯 교수의 진실한 관심과 애정은 장기간 제적 상태에 있던 학생의 재입학동기를 심어줄 수 있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학업 중단은 여러 요인이 관여하는 가운데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시금 학업의 지속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이동화, 2014).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교수와의 긍정적 관계 경험이 학업 지속과 재등록 동기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김수연(2010), 이석열(2008)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 결과 나타난 ‘바깥’ 세상 경험하기 단계는 대학 입학 이후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현장 경험을 쌓도록 도와주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진로탐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며, 이러한 실제 경험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전공적성의 탐색과 진로선택을 더욱 촉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각 대학들이 모토로 삼고 있는 ‘학생경험중심’의 교육은 바로 이러한 경험을 대학이 지원하고 장려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대학교육이 취업으로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경험 중심의 교육을 대학이 제공함으로써 학생은 자신의 진로선택의 기회를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반면, 이러한 경험의 제공이 지방사립대학에서 교육을 끝까지 받고, 졸업으로까지의 연계 가능성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향후 더 고심해 봐야 할 문제로 보여진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 중에는 군 제대 이후 전공 교수로부터 인턴 자리를 제공받거나, 현장실습을 가게 된 경우 일하는 즐거움과 돈벌이의 욕구가 충족된 경우 대학교육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대학 졸업장을 따기로 결심하고 입학한 학생들조차도 실제 현장에서는 대학 졸업장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중도이탈의 확률이 더욱 높아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학은 학생들에게 진로선택과 취업으로의 연계를 위한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 나갈 것과 대학 전공 공부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함께 제공해 주어야 하는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의 참여자 대다수는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몰두하고 학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은 현시대 대학교육을 받는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에 부합한 전공과 진로선택을 떠나 시대적, 사회적 필요를 따라 안정된 직업을 향해 자신의 꿈을 희생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성을 제시해 준다. 최근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진학이 아닌 공무원 시험 준비반을 따로 두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대학 1, 2학년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들(김수연, 2012, 최보금, 2010)은 대학교육이 안정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학생들의 불안 심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특히, 지방사립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환경의 개선을 통해 제공된 교육경험들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여 자긍심이 덜한 대학에서의 학업유지를 포기하도록 이끄는 아 이러한 현상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지방사립대학의 존립과 학생 중도 이탈 방지를 위해 설계한 학생역량강화 계획이 오히려 학생의

이탈을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 지방사립대학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숙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에 제시한 최정운, 이병식(2009)의 연구에서와같이 지방대학생들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학생들에 비해 낮은 역량을 갖고 대학에 입학하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역량이 강화된 결과(진미석, 2013)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것이 학업 유지와 졸업으로까지 이어져 학생의 중도 이탈을 예방하는 수순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방사립대학의 재학생 충원을 향상과 학생역량강화를 위해 시도하는 다양한 실천적 전략들이 어떻게 양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거시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 중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참여자들은 더 이상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에 의해 학업 중단을 결정하거나 승진 및 학벌에 대한 가치관에 의해 기존 대학에서 졸업장을 따기로 결심한다. 대다수 참여자들은 공무원 시험에 낙방을 했지만, 끝까지 도전해 보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었고 일부 학생들은 공무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학교로 돌아가 학위를 취득하겠다고 하였다. 이렇듯, 안정된 직업을 향한 열망과 불안한 현실을 반영한 학생들의 진로선택이 어떻게 대학의 존립과 함께 양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다각적으로 고심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사립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갖는 대학의 자긍심과 함께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학 졸업장이 갖는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개인의 차원에서뿐 아니라 대학과 조금 더 넓은 사회적 차원에서의 담론이 진지하게 성찰될 필요

가 있겠다.

학업중단의 중후반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진로성숙도와 학업 효능감' 및 '애매호함을 견디는 힘의 정도'는 중요한 중재적 요인으로 관여하였다. 진로성숙도와 학업 효능감은 대학 졸업장 취득에 대한 희망유무와 상관없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학업을 해 나갈 의향과 이를 지속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신념을 뜻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학업에 대한 동기와 효능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 중에는 대학교 저학년 시기에 관계의 효능감을 느끼며, 학업의 효능감도 함께 느꼈던 경우 이것이 큰 자원으로 기능하였다. 대학 입학 이전에는 학업 성적이 저조했으나 대학 입학 후 기대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얻었던 경우 학업 효능감이 더욱 높아져 공무원 시험에서 최종 합격을 하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를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효능감이 학업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애경, 김지심, 김정화(2013)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한편 애매모호함을 견디는 힘은 본 연구 결과에서 명명한 독특한 결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는 관계 효능감 및 학업 효능감과 달리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업 및 취업의 실패 경험과 미래 상황의 불투명함을 버티고 견디는 힘을 뜻한다. 진로에 있어 자기 효능감이 높은 대학생들은 더욱 수월하게 진로 결정을 하게 되지만(조성연, 문미란, 2006), 효능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실패를 경험하는 과정과 이후의 결과는 조명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애매모호함을 견디지 못한 참여자들은 이수민, 양난미(2011)의 연구에서와 같이 완벽주의적인 성향

이 있어 학업지연행동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궁극적으로 코치, 아파트분양사 등의 일을 하며 사회적 성공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였다. 애매모호함을 견디지 못하는 힘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타인의 기대를 과도하게 내면화한 결과(손진희, 2010)로도 이해될 수 있으며, 애매모호함을 견디는 힘은 취업스트레스를 견뎌내는 자아탄력성(한규철, 이현심, 2019)의 개념과도 상응할 수 있다. 향후 이 개념을 확장할 수 있는 연구를 추후 과제로 남겨두겠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사립대학 고학년 남학생들의 학업중단과 관련한 질적 탐구가 적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학업중단 학생을 심층 인터뷰하여 여러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낼 수 있었다. 둘째,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통해 각 요인들의 상호작용적 역동을 통해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시할 수 있었다. 셋째, 지방사립대학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학생들의 부족한 역량을 강화시켜 학생들의 이탈을 방지해야 하는 과업을 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생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한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이 학생의 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 이탈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었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은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드러내 줄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향후 지방사립대학이 거시적 차원에서 대학이 갖는 평판과 학생들이 느끼는 자긍심을 높이고,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함께 이뤄 나가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성찰의 질문을 남길 수 있었던데 의의가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남학생을 중심으로 한 연구

였기 때문에 여학생을 참여자로 함께 포함 시켜 볼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학업중단 비율이 높다는 김수연(2006)의 연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충청북도 소재지 대학교에서 제공 받은 제적생 명단의 남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1학년 학생들의 중도 이탈률이 상당히 높다고 제시한 김수연(2012)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 그 이유는 본 연구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저학년에 학업중단을 한 학생들의 인터뷰 참여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대부분 온라인상 연결이 잘 되지 않았고, 연결이 되더라도 참여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향후 이러한 인터뷰 모집 방법을 개선하여 여학생 및 저학년 학업중단 학생들의 자료를 함께 분석하여 조금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지방사립대학 학생들의 학업 중단의 요인을 비교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승호 (2010).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중도탈락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교육평가연구*, 23(1), 25-53.
- 권재환, 김경희 (2013).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5, 32-58.
- 김성식 (2007). 대학생들의 학업 지속/이동 결정에 대한 탐색적 분석: 대학선택 요인과 대학생활 요인의 영향. 제3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77-93.
- 김성식 (2008). 대학생들의 학업중단 및 학교이동에 대한 탐색적 분석: 대학선택요인과 대학생활만족도의 영향. *한국교육*, 35(1), 27-249.
- 김수연 (2006). 대학생의 학업지속과 중도탈락 요인분석. *한국교육*, 33(4), 33-62.
- 김수연 (2010). 대학생의 학업지속 경향성 척도개발과 양호도 검증. *진로교육연구*, 23(3), 1-29.
- 김수연 (2012). 대학 학업중단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1학년 적응과정 분석: 대학 중도탈락생의 이동 경로 구조 기초연구. *진로교육연구*, 25(3), 139-160.
- 김안나, 김성훈 (2010). 대학생 선택에 미치는 학자금지원의 영향: 휴학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41(2), 163-180.
- 김영도, 박상일 (2016). 대학생 성별에 따른 체육대회 참여동기, 참여태도, 대학생활적응 및 대학생활 만족 관계분석. *한국웰니스학회*, 11(2), 77-88.
- 김형관, 신현석, 서민원, 황기우 (2001). 대학생의 사회문화적 배경요인이 학생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고등교육*, 12(2), 117-154.
- 노혜란, 최미나 (2008). 대학생의 중도탈락 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고등학교 인적자원개발 정책 방안: S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연구*, 11(1), 89-107.
- 박성호, 강영혜, 임후남, 이정미, 엄문영, 김본영 (2014).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III):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박은선, 김광현 (2016). 학업중단요인 및 대학생활적응요인이 대학 신입생의 중도탈락 의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10), 361-384.

- 박은주, 이해경 (2016). 신입생의 학업중단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K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청소년포럼*, 46, 91-111.
- 박정애, 진미경 (2015). 남녀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 *한국인간발달학회*, 22(1), 101-123.
- 박환보, 김성식 (2011). 개인배경, 취업준비능력, 대학서열유형이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1(3), 77-98.
- 박희민 (2009). 전문대학 학생중도탈락 요인분석: 오산대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배상훈, 박인심, 강민수, 윤수경, 전수빈 (2016). 2016년 학부교육 교수·학습 질관리 및 제고 방안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백은주, 남민우, 이해듬 (2015). 지방대학 신입생들의 학업중단 예측도구 타당화.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4(2), 233-260.
- 변기용, 이석열, 송경오, 변수연 (2016).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본 현행 대학 재정지원 사업 및 평가체제 발전 방안. *지역발전위원회*.
- 손진희 (2010). 여자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 요인 탐색: 청소년기 학업우수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35-457.
- 안나영 (2016). 대학 신입생의 전공 관심도, 동료 및 선배들과의 관계, 경제적 어려움이 학업중단의사에 미치는 영향: 지방의 한 국립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오영재 (2005). 대학간 학생이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3(1), 327-356.
- 유현숙, 임후남, 서영인, 신현석, 고장완 (2012).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 연구(III). 한국교육개발원.
- 이관형, 장용규, 안현미 (2000). 교육대학 남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만족도 연구. *학생생활연구소*, 26, 111-145.
- 이덕로, 이성석 (2002). 학생생활 만족도에 대한 영향 요인 연구-고객만족관점을 중심으로. *산학경영연구*, 15, 1-24.
- 이동화 (2014).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연구: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두휴, 고희일 (2003). 대학서열체계의 공고화와 지역간 불균등발전. *교육사회학연구*, 13, 191-214.
- 이병식 (2003). 대학생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기관 특성의 탐색적 분석. *교육학연구*, 41(2), 135-154.
- 이석열 (2008). 대학생의 개인특성 및 학교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결정요인 분석. *평생교육·HRD연구*, 7(4), 89-118.
- 이수민, 양난미 (2011).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717-738.
- 임승달, 권영섭, 변세일 (200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국토개발연구*, 2004-10.
- 임 언, 곽윤영 (2011). 여자 대학생의 학업중단 유형 분류 및 관련 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30(2), 231-248.
- 정애경, 김지심, 김정화 (2013). 대학생의 자기존중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가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 영향. *공학교육연구*, 16(6), 11-18.
- 조성연, 문미란 (2006). 성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731-748.
- 조은정, 이해경 (2014). 전문대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진로적응성 관계에서 대학생활 적응 요인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7(4), 113-127.
- 진미석 (2013). 수도권 및 지방대학생 핵심역량의 격차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3(1), 105-127.
- 최길순 (2010). 전문대학생의 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G광역시 D대학을 중심으로. *한국비즈니스리뷰*, 3(1), 95-118.
- 최명선, 강지희 (2008). 대학생 중도탈락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청소년학연구*, 15(7), 203-225.
- 최보금 (2010). 대학생 학업중단의도의 변화과정과 관련된 요인 분석. 제5회 한국고용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1-25.
- 최정윤, 이병식 (2009). 대학생 학습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대학효과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7(1), 199-222.
- 한규철, 이현심 (2019).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구직효능감의 구조적 관계-취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3), 967-995.
- 한송이 (2010). 교수-학생의 상호작용이 신체적 자기효능감 및 무용능력성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형정은, 김정섭 (2016). 전문대학생의 자기불일치와 중도탈락의도간의 구조관계 분석: 우울, 진로미결정,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청소년학연구*, 23(7), 189-220.
- 홍지인 (2014).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대학생의 대학 몰입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Bræton, J. M., Jones, W. A., Hirschy, A. S., & Haetley m, H. V. (2008). The roll of active learning in college student persistence. *NEW DIREC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115, 71-83.
- Fredricks, J. A., Blumenfeld, P. C., & Paris, A. (2004). School engagement: Potential of the concept: State of the evidenc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4, 59-119.
- Ginzberg, E. (1952). Toward a theory of occupational choice. *Personal & Guidance Journal*, 30, 491-494.
- J. M. D. Hoffshire, N. Ralston, and K. J. Lacho. (2013). College freshmen retention: The first-year experience program. *Proceedings of the Academy of Educational Leadership*, 18(1), 31-35.
- J. E. Hoyt, and B. A. Winn. Understanding Retention and College Student Boies: Differences Between Drop-Outs, Stop-Outs, Opt-Outs, and Transfer-Outs. (2004), *NASPA Journal*, 41(3), 395-417.
- K. Zvoch. (2006). Freshman Year Dropouts: Interactions Between Student and School Characteristics and Student Dropout Status. *Journla of Education for Students Placed at risk*. 11(1), 97-117.
- P. Wilcox, S. Winn, and M. Fyvie-Gauld. (2005). It was nothing to do with the university, it was just the people: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the first-year experience of higher education. *Studies in Higher Education*, 30(6),

- 707-722.
- Rumberger, R. W. (2004). *Why students drop out of school*. In Gary Orfield (Ed.), *Dropouts in America: Confronting the graduation rate crisis*. Cambridge, MA: Harvard Education Press.
- Sedman, A. (2005). *Where we go from here: a retention formula for student success*. In Seidman, A.(Ed), *College Student Retention*, 295-316.
- Super, D. E. (1969). Vocational development theory: persons, positions, and proces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 2-9.
- Tiedman, D. V. & O'Hara, R. P. (1963).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ent*. Princeton, NJ: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Tweedell, C. B. (2000). *Retention in accelerated degree-completion programs*. Adult Higher Education Alliance conference Archived Proceeding.
- V. Tinto. (1975). Dropout from higher education: A theoretical synthesis of recent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5(1), 89-125.
- V. Tinto. (1992). *Student Attrition and Retention*. In B. Clark. and G. R. Neave(eds.) *Encyclopedia of Higher Education* 3, New York: Pergamon Press. 1697-1707.
- V. Tinto. (2006-2007). Research and practice of student retention: What next?. *Research and practice of student*, 8(11), 1-19.

원고접수일 : 2020. 08. 25.

수정원고접수일 : 2021. 01. 22.

최종게재결정일 : 2021. 04. 04.

## A study on the psychosocial changing process of upper grade students expelled from local private university

**Kyungeun Park**

**Jinyoung Yun**

Semyu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sychosocial changing process of upper grade students expelled from local private university. For this purpose, interview were conducted with 15 stude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a Grounded Theory. As a result, 183 concepts, 54 sub categories, and 18 essential categories were derived. The results of the process analysis showed that the process of psychosocial changing is composed of seven steps 'Find a sense of belonging', 'Find fun', 'Stop thinking', 'Experience the (outside) world', 'Career decision', 'Immersion', 'Finish the cours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compared with previous researches, and the newly discovered points and future research topics and points to be considered in local private university field were discussed.

*Key words* : local private university, male college students, dropout, Grounding theory